

1997년 12월, 대한투자신탁 연구팀의 해외출장 가이드를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분이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치료 역사가 나타난다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와 아내(이순옥 선교사)는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내는 설교 후 이재록 목사님께서 단에서 해주시는 환자 기도를 받고 산후풍을 치료받았습니다.

1988년 5월, 저도 기도를 받고 고질적인 허리디스크가 완치됐습니다. 특히 창세기, 요한계시록 강해 등을 통해 성경의 난해구절이 풀리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을 눈으로 직접 보니 신앙생활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태국 선교사가 되어

그러던 중 2007년, GCN(세계기독교 방송네트워크) 방송을 시청하며 은혜받았다고 고백하는 한 태국 성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평소 태국 선교에 관심이 있던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는 우리 교회 부설 MMT(만민세계선교훈련원) 태국 비전트립을 다녀온 뒤 선교사 지원을 했지요. 그해 11월 9일, 태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만민중앙교회의 태국 첫 지교회 차이브라칸 만민교회에서 사역을 도왔습니다. 점차 현지 목회자들을 알게 됐고 특히 부흥사 K목사를 만나 많은 협력교회를 얻었습니다.

‘권능’ DVD, ‘만민뉴스’, GCN 방송을 통해 선교 기반을 다지고

저는 시간만 나면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들고 다니며 교회를 방문해 담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 DVD를 보여주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한 태국어 ‘만민뉴스’를 제작해 태국 전 교회에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목회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중에 농복 목사님(에탄골드교회 담임)과의 연결은 선교



“권능의 역사가 따르니 선교 사역 쉽고 행복합니다”

이재원 선교사 (태국 차이라이 만민교회 담임)



의식 불명의 위기에서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살아나
미얀마에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던 룯차나 풍속 자매가 국경을 넘어 태국 차이라이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락을 받은 이재원 선교사는 10일간의 식이 없는 그녀에게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의식이 돌아오면서 깨어났다. 그 후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위대종 목사(차이브라칸 만민교회의 손수건 기도로 건강을 되찾고 있다.



‘십자가의 도, 책자 읽고 가족복음화 이뤄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던 중 ‘십자가의 도, 책자’를 읽고 변화된 차이라이 만민교회 위라이 브라칸 성도 우상을 심어 줬던 남편도 주님을 영접하고 1500개의 우상을 한꺼번에 버린 뒤 축복을 받아오고 있다.

사역을 크게 펼치는 데 다님들이 됐습니다.

2010년 11월, 이성철 목사님(만민중앙교회 부목사)이 인도한 손수건 집회행 19:11-12를 통해 여러 교회 가 만민 지교회로 가입했습니다.

특히 농복 목사님은 지교회 가입 후 GCN 위성 수신안테나를 설치해 찬양, 설교, 간증 프로그램을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언어가 달라 알아 들을 수 없어도 다니엘철 야 기도회에 동참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중 북부 지역에서 패혈증으로 임종 직전까지 갔던 로사린 자매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농복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전화로 연결한 후, GCN 방송에서 나오는 환자 기도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지요. 이

처럼 태국에서는 GCN 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만 방송되는데도 언어와 시공을 초월한 놀라운 치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이라이 만민교회 창립 후, 주변 국가에도 선교의 길이 열려

2011년 2월에는 이성철 목사 초청 차임다오 손수건 집회를 열었습니다. 7개 마을, 4개 부족이 참석했습니다. 불교국가인 태국에서 최초로 지방정부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쾌거였지요. 이 집회에서 불신자가

나타나 이곳에 만민 지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2월 12일, 드디어 차이라이 만민교회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차이라이 시 주변 국가인 미얀마와 라오스에서도 목회자 및 성도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라오스 국가를 대상으로 목회자 훈련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장(faith vision)도 참석했습니다. ‘만민뉴스’를 통해 은혜받고 연결된 목회자입니다. 이분의 도움을 받아 라오스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해 라오스 선교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됐지요.

또한 창립예배 때 라디오 방송 관계자가 우연히 참석하게 됐는데

저는 담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대표 저서 『십자가의 도』를 증명했습니다. 그분은 이 저서를 읽은 뒤 ‘차임라이 만민교회는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태국 교회의 가장 좋은 모델의 교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감격해 했습니다.

무료로 라디오 선교 방송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지요. 이 CRU 방송은 차임라이를 중심으로 미얀마, 라오스 국경 지역까지 송출되는 영향력 있는 라디오 방송으로서 매주 토요일 담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와 만민 찬양, 환자를 위한 손수건 기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법안설텔에도 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발판이 마련되고

2011년 5월에는 방콕 청소년 교도소 집회를 열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 파키스탄, 스리랑카 선교팀장사 갈레사 목사이 방콕을 경유하게 되어 설교와 공연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집회는 교도소 측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진행됐습니다. 법무부 청소년 교도국장 및 정당인, 교도소 경생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매우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며, 법무부 고위공직자에게 담회장님의 선교 사역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는 담회장님께서 마약 퇴치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바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자원 봉사상을 받은 내용이 담긴 DVD를 보여준 것이 한 몫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집회를 통해 좋은 영향을 끼친 공로가 인정되어 저희 부부는 법무부 보호경생원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법안설텔이 단 3개월 만에 형통하게 이뤄졌습니다. 이로 인해 당국의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선교 사역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01 교회소식

개종의 역사가 넘치는 아시아 선교

이재록 목사 초청 연합대성회를 기반으로 지금 아시아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발한 선교 사역을 이루어 수많은 개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일곱 교회

에베소, 서대문, 바기모, 두이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스개아 등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약속을 듣는다.

03 기획특집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 (1)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 말씀대로 행해 나갔기 때문에 일곱 교회 중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다.

04 간증

“권능의 역사가 따르니 선교 사역 쉽고 행복합니다”

이재록 목사의 저서와 만민뉴스, GCN 방송, 그리고 손수건 기도를 통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펼치시는 선교 사역이 너무 쉽고 행복하다는 이재원 선교사의 태국 선교 이야기

만민뉴스

제498호 2011년 9월 1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폭발적 성령의 역사! 아시아에도...

전 세계 69억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살고 있으며 세계 4대 종교인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발상지 아시아. 이곳에도 만민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알알이 맺혀가고 있다. 지난 9월 6일에 네덜란드 자바 지역에서 손수건 집회가 열렸다. 담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줄 때 각색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오는 19일부터는 일본 오사카, 마이즈루, 교토, 나고야 4개 지역에서 손수건 집회가 열린다. 또한 지난 8일-9일, 인도에서 ‘델리 만민선교센터 협력목회자 세미나’가 열려 인도와 방글라데시 16개 주 목회자들에게 만민의 사역을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이 목사의 다국어 신앙 서적, 아시아 전역을 커버하는 THAICOM5와 NSS6 위성, 필리핀 케이블 채널, 인도 아틀라 푸 GCN, 파키스탄 이삭 TV 등 방송사와 20개 언어로 발행되는 ‘만민뉴스’를 통해 성경 복음과 하나님 권능이 아시아 전역에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선교 사역은 이재록 목사를 감사로 열린 네 차례의 연합대성회를 기회로 마련됐다. 지난 2000년 9월 ‘일본 나고야 신유대성회’와 10월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이어 2001년 9월에는 ‘필리핀 연합대성회’ 열렸다.

특히 2002년 10월에는 인도 첸나이 마라나 해변에서 연인원 3백만 명이 모인 ‘인도 연합대성회’가 열렸다. 타밀라루 주 정부는 ‘강제 개종금지 규정’을 발표해 성회 개최를 해방했으나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목발과 휠체어를 버리고 걷고, 에이즈(AIDS)가 치유되는 권능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이 개종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통해 만민중앙교회와 NCS-6를 통해 통회 화해해로 누립니다.

- 부산만민성경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림 1동 275-77 ☎010-8223-4181
- 서울만민성경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월 2동 10번지 백성 B/D 7층 ☎010326-6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33(326)-4717, 010-4575-1834
- 새누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10-428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동동 37-1 ☎042(825)-1205, 033-6283, 010-5494-3827
- 새세대만민교회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82-5(3층) ☎042(252)-2073, 010-7777-70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서정 강 건너편 ☎062(513)-2454, 010-8888-01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개동 1동 100호(3층) 평면 ☎062(332)-1002, 010-2290-777-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구화동 1동 157-4 ☎062(28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87)-5011, 010-2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회동 549-46 ☎052(281)-223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관동읍 진서리 102-1 ☎031(652)-4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림리 19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경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2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청남도 공주시 신안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아산만민교회 충청남도 아산시 관북동 55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시만민교회 충청남도 아산시 관북동 535-16 ☎041(546)-1537, 010-2872-0244
- 새창만민교회 충청남도 새창읍 갈매동 44-1 ☎042(841)-0081, 010-7195-1029
- 창주만민교회 충청남도 창주읍 용덕구 수덕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창주만민교회 충청남도 창주읍 신당구 용림동 356 ☎043(211)-1855, 010-23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70번지 두산빌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경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06-1 ☎055(247)-8891-2, 010-52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포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진주시 사천읍 선암리 301-5 ☎055(852)-5815, 010-9196-3827
- 영양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림동 626-18 ☎010(473)-2707, 011-603-7766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8222, 010-2931-442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사천읍 선암리 301-5 ☎055(848)-4107, 010-5214-8891
- 순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8882, 010-3800-2048
- 완주만민교회 경남 김천시 동천동 835-9 ☎043(478)-5777, 010-3147-5777
- 포항만민성경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33(637)-0271, 010-8433-1327
- 영포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림동 909-1호 3층 ☎033(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749)-4625, 010-2349-1537
- 여수만민성경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1-5 ☎061(8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경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남면 장전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동동 18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영암만민교회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두리 47-11 ☎061(473)-2707, 011-603-7766
- 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5)-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상가내 ☎063(853)-0675, 011-637-028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900-2069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9)-1535, 010-4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0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보남동 102-4 3층 ☎033(641)-3700, 010-6334-701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9)-0275, 010-2488-2251
- 영동지성전 영동특별자치도 영동시 강남구 대지동 90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895)-96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동 508-1 ☎031(485)-9143, 017-366-3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중앙 5동 28-41 ☎032(832)-9857, 011-287-7369
- 군포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99)-3833, 010-7720-7770
- 평택지성전 경기도 평택시 아람동 367-4 ☎031-6335-18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MS-3 ☎031(91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852)-7397, 010-2290-1856
- 김포지성전 서울특별시 김포시 길 1동 349-5 ☎02(494)-9766, 010-332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00-3 ☎032(528)-3367,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312)-2164, 010-2718-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835)-4033, 010-2718-153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오정동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

기획 특집 일곱교회

- 에베소 교회
- 서마나 교회
- 버가모 교회
- 두아디라 교회
- 시대 교회
- 빌라델비아 교회
-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1)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불자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요한계시록 3:7-8)



당회장 이재록 목사

-
-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총회장
- (사)기독교 세계부흥선교회의회 상임총재
- (사)교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 기독교사 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 기독교방송, 기독교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역하던 당시 빌라델비아는 전체 인구가 1천여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그곳 사람들은 디오니소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를 숭배할 만큼 포도주와 춤 등 향락을 즐겼다고 합니다.

또한 빌라델비아는 교통의 요충지로 당시 사데, 버가모, 트로이를 거쳐 로마로 가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세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로, 오늘날 많은 교회의 표상이 됩니다.

1.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사람보다 뛰어나며 죄에 물들지 않고 흠과 잡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원래 거룩하다는 표현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는 거룩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벧전 1:16). 요한복음 10:34-35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란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을 뜻하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이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이라 인정한다 해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신의 차원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서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벧전 1:16)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진실'은 거짓이 없는 참을 뜻하며 변개하지 않는 것, 좌우로 치우치거나 간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실할 때 믿음도 주어지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이 곧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진실하지 못할 때에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거나 비진리에 유혹될 수 있고, 진실한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고전 2:13).

2.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축복의 문이든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얻기까지 다윗에게는 혹독한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한 뒤 그녀가 잉태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일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아가 얼마나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삼하 11장). 다윗은 그처럼 선한 부하를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드는 엄청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특별히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여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권세를 가진 왕의 위치에 있었기에 마음 깊이 내재된 본성 속의 악이 결국 이런 범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악의 모양이 남아 있으면 그럴 만한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질 때 언제든지 범죄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연단을 허락하여 철저히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아 온전한 성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혹독한 연단을 받으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들 암살혐의 반역으로 쫓길 때 자신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백성을 벌하지 않았습다(삼하 16장).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지요. 이전에 왕의 권세로 죄 없는 우리아를 죽게 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된 후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았습다. 자신의 계보를 통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 결국 구원의 문이 열리는 축복까지 받았습다. 다윗의 열쇠는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만큼 건강, 물질, 명예, 권세의 문이 열리고, 종국에는 가장 큰 축복이라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열쇠, 곧 모든 축복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므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열리고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행 4:12). 원수 마귀 사단

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모든 축복의 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고 닫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3.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에 앞서 하늘 문을 열고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히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문을 여셨으니 사람이나 천사나 원수 마귀 사단이라 해도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할 것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8-19) 하시며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며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놀라운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언약은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은 모든 사람과 교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고 인도해 가시는 사람과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앞에 열어 주신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4.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4.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적은 능력'이란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여 겨자씨만 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듭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따라 점차 성장하여 큰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처음에 가진 적은 능력, 즉 작은 믿음을 가졌을 때부터 배운 주님 말씀을 지키며 열심히 믿음을 키워 왔습다.

사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할기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은혜받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적은 능력을 가졌을 때에는 기분 상할 일이 생기면 이내 할기를 내고 맙니다. 하지만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해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불같이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 나가므로 신숙히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실제로는 큰 능력을 가졌는데도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진 것과 같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며 권세도 능력도 똑같이 지닌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배고픔이나 추위, 육신의 피곤함, 삼사가의 모진 고통 등을 보통 사람과 똑같이 느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진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매우 큰 능력을 가진 본인에도,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공의에 맞추어 행하셨습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끈고 중심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능력을 주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에 맞추어 한 단계 한 단계 이끄셔서 적은 능력으로부터 마침내는 큰 능력으로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함은 물론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배반한다는 것이 꼭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주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넓은 의미에서는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막상 시험이 오면 노력해 보지도 않은 채 다스림 세상 풍조를 좇아 타협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알면서도 작은 것이라 하여

행치 않다 보면 어떤 시험 환난이 왔을 때 이기 쉽지 않습니다. 불행 불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쯤이야' 하며 진리를 여긴 것이 결국에는 주님을 완전히 배반하는 상황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 그 행함이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며 시험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의 비진리를 벗어나고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핍박이나 시험도 인내하며 나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죄와 아등, 욕이 무엇인지 알아 신속히 벗어 버리고 선과 의와 빛 등 진리에 대한 것도 밝히 알아야 합니다. 자칫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진정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지적과 책망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것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 밝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오늘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경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친히 간섭하는 제단에 대해 밝히 깨우침을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늘날에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라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어떤 핍박이나 연단이

온다 해도 끝까지 인내하여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장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며 놀라운 권능의 차원이 듭니다. 원수 마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의 문, 큰 기사와 표적과 희한한 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문 등 많은 축복의 문을 열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적인 축복의 문을 열어 갈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적 조건을 갖추었다면 개인적으로도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더 가까이 주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후 지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모델 삼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핍박이나 시험도 인내하며 나아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창조된 권능을 허락하시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다. 물론 처음부터 단번에 지금과 같은 권능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공의에 맞추어 때로는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겪으며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단계씩 이끌어 주셨습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쇠를 주셨다 해도 그 열쇠로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려는 것은 개인의 몫이고 각 교회의 몫입니다. 학개 2:9에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신 것처럼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더라도 저마다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창대하게 이루고 많은 열매를 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겠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만민뉴스
등록 번호-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모시는 길

광화문
7호선 남영동역
신촌역 1차 출구
4호선 안암역
4호선 안암역 1차 출구
구로역 1차 출구

안암역
시흥대로
시흥대로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1번 출구에서 환승 553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553, 5615번 (교회앞 하차)
*403, 504, 571, 652, 50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팀 (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성경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찬양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최요찬양예배 [대한·가인·청년·배움·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매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한 전기독서시 우송료없는 정기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료 : 원본 10,000원 (신분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매금주 위상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100072-52-061722
농협 우체국 012419-02-047269

September

특별한 마음과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9월...
GLN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주요 프로그램

- 2011 전국 기관장 교육 1 (9월12일), 2 (9월13일)
- 특별은사집회 (9월12일)
- 금요찬양 스페셜 (이복남 원장 9월12일, 이수진 목사 9월13일)
- 특선명화 (원종환 9월12일, 심계 9월13일)
- 2011 하계수련회 특별 프로그램 (9월12일-13일)